‘양기’ 빠진 KIA “헥터, 너만 믿는다”

〈양현종〉·〈이명기〉

양현종 옆구리·이명기 허벅지 부상
1군 엔트리 말소 … 5강 싸움 ‘비상’
가을야구 확정 때까지 출전 못해
헥터, 잔여 8경기 중 2경기 선발
오늘 SK전 출격…승리 절실

‘에이스’를 뺀 KIA 타이거즈가 험난한 도전에 나선다.

KIA는 지난 3일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많은 걸 잃었다. 5-20이라는 삼성의 올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의 희생양이 되면서 5강 싸움에 걸린 중요한 승리를 내줬고, 엔트리 두 자리도 사라졌다.

2-0으로 앞선 3회말 선두타자 최영진에게 솔로포를 내줬던 선발 양현종이 2사 1·2루에서 이원석에게 두 번째 홈런을 맞은 뒤 옆구리를 붙잡으면서 고통을 호소했다. 앞서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던 이명기도 허벅지 통증으로 유재신으로 교체됐던 상황.

두 사람은 4일 구단 지정병원인 선한 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MRI와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각각 우측 늑간근육 미세 손상과 우측 햄스트링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양현종은 지난 2013시즌에도 비슷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

6월 28일 삼성 원정경기에서 양현종은 김상수에게 이날 세 번째 피홈런을 허용한 뒤 마운드에 주저앉았다. 더 투구를 하지 못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던 양현종은 우측 늑간 근육 손상 진단을 받았다. 2~3주가량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던 양현종은 8월 7일 다시 마운드에 등장했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2013년 경우보다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파열이나 출혈이 없는 미세 손상이라 1주일쯤 뒤에 재검진을 받고, 스케줄을 짤 예정이다.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도 KIA의 현재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부상이다.

KIA는 양현종 없이 남은 8경기를 치러 5위를 지켜야 한다. 5위로 시즌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에이스’ 없이 포스트시즌을 맞아야 한다.

헥터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양현종이 빠진 마운드에서 계산이 서는 선발은 헥터가 유일하다. 지난 시즌의 위력과 견고함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29경기에서 184.1이닝을 소화한 양현종에 이어 27경기에 나와 159.1이닝을 책임지면서 10승 9패를 기록하고 있다.

시즌이 거듭되면서 임창용 앞에 붙은 ‘선발’이라는 타이틀이 어색하지 않게 됐지만, ‘기복’이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헥터가 남은 두 번의 등판을 흔들림 없이 소화해줘야 한다.

헥터는 4일이 아닌 5일 SK와의 원정경기 선발로 나선다. 로테이션상으로 4일 등판이 예상됐었지만 KIA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승률 높이기 전략을 짰다.

까다로운 김광현과의 맞대결을 피해 확실한 승리 카드로 헥터를 사용하겠다는 계산이다.

헥터의 막판 스퍼트와 함께 마운드 위기를 기회로 바꿀 ‘난세의 영웅’도 필요하다.

한편 KIA는 마운드 싸움을 위해 양현종과 3일 복귀전에서 1이닝 6피안타 3사사구 2탈삼진 7실점으로 부진했던 박정수를 빼고 4일 좌완 김유신과 하준영을 콜업했다. 이명기의 자리는 최정민으로 대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선동열 “선수 선발 과정, 청탁 없었다”

AG 야구 대표팀 감독 기자회견 “국감 성실히 임할 것”

선동열(55) 한국 야구 대표팀 전임 감독은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도, 불법행위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뒤 “특정 선수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선 감독은 4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선발 관련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선 감독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저조한 경기력으로 실업 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대만과 일본에 연달아 고전한 바람에 야구팬들의 비판을 자초했다.

비난은 오지환(LG 트윈스) 등 일부 선수의 병역 논란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청탁을 받고 국가대표를 선발했다는 등 각종 억측까지 불거졌다.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대표 선수 선발에 대한 잡음이 가라앉지 않자 선 감독은 논란이 제기된 지 한 달 여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돌파에 나섰다.

선 감독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어떤 청탁도, 불법행위도 전혀 없었다. 나와 국가대표 야구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억측, 명예훼손은 자제돼야 한다. 국가대표 감독으로서의 내 명예도 존중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 선발 과정은 공정했다. 코치진과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 통계와 출장기록, 포지션, 체력 등 여러 사항을 살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인 내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선 감독은 “국민과 야구팬, 청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병역 특례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둔감했다. 이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앞으로 있을 국가대표 선발 방식과 병역 특례 제도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정부 등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 야구를 사랑하는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오는 1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설 선 감독은 “국민의 한 사람, 야구국가대표 감독으로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행정가가 아닌 국가대표 감독이 국정감사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또 선 감독은 “감독인 저의 권한과 책임으로 선발돼 금메달을 따낸 특정선수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선동열 한국 야구대표팀 전임 감독이 4일 야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 병역 미필선수 선발 관련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가을의 전설’ 시작

오늘 MLB PS 한국인 첫 1차전 선발 … 애틀랜타 왼손 강타자들 넘어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1선발을 꿰찬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5일 오전 9시 37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1차전에 출격한다.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1차전에 선발 등판하는 건 류현진이 최초다. 앞서 김병현이 2003년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으로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에 등판했지만, 임무는 불펜 투수였다.

애틀랜타는 류현진의 빅리그 포스트시즌 데뷔전 상대였다. 류현진은 2013년 애틀랜타와 NLDS 3차전에 선발 등판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며 3이닝 6피안타 4실점으로 흔들린 바 있다.

5년 전 애틀랜타와 지금 애틀랜타는 완전히 다른 팀이다.

2013년 애틀랜타의 주전 선수 가운데 지금도 팀에 남아 있는 선수는 팀의 핵심 타자 프레디 프리먼이 유일하다.

좌타자지만 좌완 투수에 강한 프리먼은 류현진의 천적 가운데 한 명이다. 프리먼과 류현진의 상대 전적은 타율 0.625(8타수 5안타), 1타점, 2볼넷이다.

찰리 컬버슨(타율 0.439), 애덤 듀발(타율 0.375)도 류현진에 강한 면모를 보였던 타자다.

류현진이 경계해야 할 또 한 명의 선수는 올해 신인상이 유력한 외야수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다.

톱타자로 활약하며 애틀랜타의 지구 우승에 힘을 보탠 아쿠냐는 타율 0.293에 26홈런, 64타점, 16도루로 장타와 빠른 주루 모두 능한 선수다.

아쿠냐는 아직 류현진과 상대한 경험은 없다. 대신 좌완 투수 상대 타율 0.302로 경계해야 할 선수다.

애틀랜타는 팀 타선 자체가 좌완 투수에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 애틀랜타의 좌완 팀 OPS(출루율+장타율)는 0.781로 콜로라도 로키스(0.798)에 이어 내셔널리그 2위다.

애틀랜타와 3경기에서 1패 평균자책점 2.95를 거둔 류현진의 최근 성적은 눈부시다.

부상 복귀 후 후반기 9경기에서 4승 3패 평균자책점 1.88로 호투했고, 이 기간 53개의 삼진을 잡는 동안 볼넷은 단 5개만 내줄 정도로 정교한 제구력을 자랑했다.

특히 지구 선두 자리가 걸린 마지막 3경기에서 3승 평균자책점 0.47로 활약해 포스트시즌 1선발 자리까지 차지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결승 호투로 ‘빅게임 피처’라는 별명을 얻었던 류현진이 야구 인생에 남을 만한 도전에 나선다. /연합뉴스

테니스 황제 vs 여제 격돌

연말 호프만컵 8개 나라 혼복 경기
스위스 페더러·미국 윌리엄스 한조

‘테니스 황제’와 ‘테니스 여제’가 사상 처음으로 맞대결을 벌인다.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세리나 윌리엄스(미국)는 12월 29일 호주 퍼스에서 개막하는 호프만컵에 나란히 출전한다.

호프만컵은 해마다 12월 말부터 새해 1월 초까지 열리는 대회로 공식 투어 경기가 아닌 이벤트 형식의 행사다.

올해 대회에는 8개 나라에서 남녀 한 명씩 2명으로 팀을 구성해 우승팀을 정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페더러는 벨린다 벤치치와 함께 스위스 대표로 출전하고, 윌리엄스는 프랜시스 티아포와 한 조로 미국을 대표한다.

미국과 스위스가 같은 조에 편성되면서 페더러와 윌리엄스는 2019년 1월 1일에 혼합복식 대결을 펼치게 됐다.

1981년생 동갑인 페더러와 윌리엄스가 서로 반대편 코트에서 맞대결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1월에 역시 호주에서 열린 아이티 지진 돕기 자선 경기에 같은 조로 출전한 적은 있다.

페더러는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통산 20회 우승했고, 윌리엄스는 23번 정상에 올랐다.

페더러는 남자 선수 메이저 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윌리엄스 역시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만 따져서는 최다 우승 기록 보유자다.

만일 윌리엄스가 내년 1월 호주오픈을 제패하면 24회 우승을 달성해 마거릿 코트(호주)가 가진 1968년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기록과 동률을 이룬다.

현재 페더러의 남자단식 세계랭킹은 2위, 윌리엄스는 여자단식 세계랭킹 17위다. /연합뉴스

로저 페더러

세레나 윌리엄스